

# 편집자로 산다는 것

정은숙 | 마음산책 대표



“기획은 삶의 어떤 부면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런 작업은 편집자로 생활하는 한 언젠가는 책 또는 책과 비슷한 체계적인 내용물로 재생산된다.”

어떤 디자이너의 경우, 디자인을 부탁하면서 이미 판형과 제본 형식, 심지어 재질까지 다 결정해놓은 후 디자인을 의뢰할 때 당황한다고 한다.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많다. 가령 어떻게 (팔리는) 책을 기획하느냐, 어떻게 편집해야 (잘) 팔리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올 때, 그리고 그 대답을 한두 마디의 말로 간결하게 해주기를 원할 때 나는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이럴 때 아직도 출판계는 전근대라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미신 같은 묘방이 횡행하는 우리 출판계에 대해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 책 만드는 일은 세상을 편집하는 것

내 경험에 따르면 사실 편집이나 기획처럼 변수가 많은 작업도 드물다. 한 권의 책을 만들 때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산고에 가까운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말하면 엄살이나 과장이라

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일처럼 어떤 익숙한 방식을 따라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작업도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매번 새로 다시, 하는 초발심만이 유일하게 내가 기대불언덕이다.

편집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저자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 독자는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편집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나는 여기에서 편집자는 저자와 독자 사이의 매개자라는 식의 모범대답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편집자는 편집, 기획, 제작의 주체적인 집행자다. 또 기획은 그저 어떤 책, 하는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드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일괄작업의 ‘첫 단추 끼우기’에 해당한다고 나는 믿는다.

따라서 편집자는 책을 만들면서 또 세상의 일부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물론 오늘날 책의 의미는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 의미가 더 무거워진 점도 있고, 또 상당 부분 가벼워진 부분도 있다. 그런데 책의 의미를 일련의 정연한 사고 체제라는 식으로 확대해서 보면 인류의 모든 지혜가 다 이 가운데 내포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만든다는 것은 비단 책만이 아니라 세상을 편집하는 작업 한가운데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요즘은 물음을 던지기보다는 대답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책을 잘 모르고 또 편집이라는 활동까지 잘 모른다는 생각을 반추하곤 한다. 그것은 책의 의미가 어느 한 가지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러하듯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황이 워낙 어려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세상에는 쉬운 책, 어려운 책 등 슬한 책들이 많지만 편집, 기획 작업에서 쉬운 책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일러 한두 마디로 말해야 한다면 차라리 나는 침묵하기를 택할 것이다.

## 삶의 정경 관찰하는 데서 기획력 나와

우리 삶의 풍토와도 무관한 것은 아니겠는데, 세상에는 애초에 아주 단순화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법이다. 가령 기획이라고 해보자. 이것은 단 몇 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별로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닌데, 그것은 애초에 잘 요약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무슨 책을 누구를 향해 내놓기 위해 기획하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사고 없이 이런 책이 나왔으니까 저런 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발상은 기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기획은 삶의 어떤 부면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것은 책으로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편집자로 생활하는 한 언젠가는 책 또는 책과 비슷한 체계적인 내용물로 재생산된다. 부연 설명하면 시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시를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듯이, 꼭 책이라는 매개체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삶이라는 더 큰 공간에서 편집이라는 것은 구현될 수 있다. 레이아웃이란 말이 원래는 잔디 깎기에서 나온 말이라지 않은가?

편집자로 살기가 어려운 것은 책 만들기의 어려움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삶의 자세를 취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데서 기인한다. 남들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즐기는 데 비해 나는 어느새 저걸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아서 어디에다 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지끈, 머리가 아파온다. 자주 주변 사람들을 향해 이런 짜증을 퍼붓곤 하는데, 이제는 별종으로 취급해서 다들 이해해 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

정은숙씨는 이화여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홍성사, 고려원, 세계사, 열림원 등에서 편집기획자로 일했으며 현재 마음산책 대표로 있다.